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치수 129p, 중고선가치수 109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29p(-, WoW), 중고선가치수는 109p(+3p, WoW)를 기록함. 지난 주 현대중공업이 91,000CBM 급 VLGC 2척과 300,000DWT급 VLCC 4척을 수주함. 현대삼호중공업이 91,000CBM급 VLGC 3+1척을 Evalend Shipping으로부터 수주함. 대우조선해양이 91,000CBM급 VLGC 3척을 수주함. 현대미포조선이 40,000CBM급 LPG선 1척과 50,000DWT급 MR탱커 2척을 수주함. (Clarksons)

Qatar kicks off world's largest LNG carrier hunt with shipowner tender

Qatar가 100척 이상의 LNG선을 발주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Qatar Petroleum수주내로 선주들(Pre-qualified)로부터 장기 용선계약을 위한 입찰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됨.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Qatar Petroleum은 ITT(Invitation To Tender)를 지난 3월 16일 선주들에게 발송했다고 보도됨. 4월 중순까지 Technical bids 입찰이 진행되며 Commercial offers는 7월 중순까지라고 보도됨. (TradeWinds)

GEV to talk to yards after initial approval for compressed hydrogen carrier

시드니소재의 Global Energy Ventures(GEV)가 미국선급(ABS)로부터 압축수소운반선 화물창 시스템에 대한 기본승인을 허가했다고 보도됨. 이 시스템은 GEV가 C-H2 프로젝트라는 명명하에 고안된 화물창으로 2천톤가량의 수소를 저장/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도됨. GEV는 주요 조선소와 접촉하여 이 시스템의 적용방안을 추가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케미컬탱커 빛이 보인다

케미컬 탱커 시장은 변곡점을 지나고 있으며 Global Chemical Freight Index는 2020년 4분기 이후 상승 궤도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됨. 아직까지 강세기조가 장기 용선까지는 힘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급 균형은 상승세를 달리고 있으며 오더북 규모는 최저 수준이라고 보도됨. 2021년 하반기 세계 경기 회복으로 케미컬 탱커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컨테이너, 벌크 계속 상승세 유지

2020년 해상 물동량은 5%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6% 증가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컨테이너 해상 물동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많으며, 물동량이 늘어나는 주 요인은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성향이라고 보도됨.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중은 상승했지만, 구매 물품은 결국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운임 강세가 유지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두산중공업, (주)두산 보유 두산퓨얼셀 지분 현물출자

두산중공업이 (주)두산이 보유 중인 두산퓨얼셀 지분 전량을 현물출자 받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주)두산에 배정한다고 19일 공시함. 두산중공업이 (주)두산으로부터 현물출자 받는 두산퓨얼셀 주식은 보통주 1,001만 6,672주(약 5,117억 원), 1우선주 188만 843주(약 296억 원), 2우선주 15만 8,248주(약 29억 원)로 총 5,442억 원 규모라고 보도됨. (한국경제)